**마2730 Note**

**◆Cross check : 시2206-8**

시2206. 그러나 나는 벌레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책망거리며, 백성에게서 멸시

를 받나이다.

시2207. 나를 보는 그들 모두가 비웃어 냉소하나이다, 그들이 입술을 내밀며, 그들

이 머리를 흔드나이다, 말하되,

시2208. 저가 여호와 위에서 신뢰했으니, 그분께서 저를 구하실 것이라, 그분께서

저 안에서 기뻐하신 것을 아노니, 그분으로 저를 구하게 하라.

시109:25. 내가 또한 그들에게 책망거리(헤르파:모욕적인,치욕,외음부,참소,책망,수

치)가 되었으니 곧, 그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머리들을 흔들었나

이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김옥경, p47

"그때 사람들이 나를 때렸어, 때리고 때리고, 또 때렸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그

들은 나를 때렸어,

나의 모든 살이 다 찢어지고, 혈관이 터지고, 신경이 손상되기 까지…,

그들은 나를 때리고 또 때렸어.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지고 아픔을 느낄 수도 없었

어, 그렇게 육체의 통증은 떨어졌어도, 수치감과 모욕감이 나를 더 아프게 했어,

그들은 발로 걷어찼어, 더러운 침을 내게 뱉고, 수치스런 욕설과 저주로 나를 짓밟

았어, 나를 더럽히고 또 더렵혔어.

나는 그때 개보다 못하고, 벌레보다 못했어.

마치 벌레처럼 짓뭉개지고 처참하게 짓이겨질 수 밖에 없었어,

내가 무엇을 했기에, 무슨 악을 행했다고, 무슨 잘못이 내게 있다고...,

저들은 제정신을 잃고 미친 사람들처럼 나를 향하여 분노와 저주와 사악을 토해냈

어, 나는 변명도 해명도 하지 못하고 도망칠 수도 없이 그저 저들 앞에 잠잠히 버려

져 있어야 했어.

너희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하며, 그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알기에 피할

수가 없었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사랑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버지의 울부짖음이 나를 붙

들었어. 모두가 나를 버렸고 나를 배신했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은 내게 남은 유일한

위로였다.

그러나 너희의 모든 죄, 너희의 크고 중한 죄가 내게 다 이양되어 내가 죄 덩어리

요, 저주 덩어리가 되어 심판대 위에 오른 그때,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야

하는 그 순간, 죄값으로 지불되는 그 순간,

나는 아버지에게 마저 버림을 받아야 했어.

그때의 나의 아픔을 네가 아느냐?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너희를 포기할 수 없고, 실패하여 영원한 형벌 가운데

너희를 둘 수도 없었어,

무엇보다도 난 아버지를 아프게 할 수 없었어. 너희를 사랑하여 고통으로 찢어져 상

처투성이인 내 아버지의 심장을..., 너는 아느냐?

나는 내 아버지의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의 아픔을 차마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자청하여 이 땅에 오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사랑을 아버

지께 드리길 원했어,

십자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단절, 그것이 가장 나를 힘들

고 아프게 한 것이었다. 나의 그 아픔을 네가 아느냐?

또한 그토록 사랑하는 외아들을 저주 아래 죽게 하고 버려야만 하는, 내 아버지의

아픔을 네가 아느냐?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와 아버지의 사랑이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김옥경 p43

"너희는 내가 전능자이고 절대 주권자이기에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을 거라 생각하

여, 나의 마음에 무관심하고 나의 슬픔에 동정하지 않고 있단다.

나의 마음에 무관심하고 나의 슬픔에 동정하지 않고 있단다.

너희가 내게 얼마나 무정하고 냉혹한지 아느냐?

내게는 깊고 깊은 아픔의 강이 있다.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의 강물이 너희를 향한 사랑의 길

을 따라 굽이쳐 흐르는 것을 너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단다. "

이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아픔의 정체는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심장에 세상과 영혼들을 담으셨기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 세상의 모든 질고

와 간고가 슬픔의 강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내려놓으시고 부인하신다면, 자신과는 완전히 무관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세상을 싫어 버리지 않으시고, 그 품에 움켜 안고 고통 가운데 계셨

습니다.

사랑하는 그가 되어 사는 것,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